

“학생 줄어도 운영비 여전”... 교장단체, 교육교부금 개편 반대

정부, 초과세수 산정방식 개편 논의 교장단체 “학령인구만 본 축소 안 돼” 인건비·시설관리비 등 고정비는 여전 디지털 전환·돌봄 등 교육 수요 확대



/유투이미지

올해 대규모 초과 세수 전망을 계기로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에 나선 가운데, 전국 교장단체들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부금 산정 방식을 바꾸는 것은 학교 운영에 필요한 고정비와 미래 교육 수요를 외면한 접근이라는 주장이다.

전국 1만2000여 공사립 초·중등·특수학교를 대표하는 한국초등교장협의회, 한국중등교장협의회, 한국특수학교장협의회, 대한시립학교장회는 22일 공동성명을 내고 “학생 수 감소라는 단순한 재정 효율성의 논리에 입각한 일방적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의무교육 재정의 확보와 지역 간 교육 격차 완화를 위해 1971년 제정된 제도다. 1958년 의무교육 재정부담과 1963년 지방교육교부세를 통합해 마련됐으며, 이후 지방교육재정의

핵심 재원으로 자리 잡았다. 현재는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교육재정으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가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에 착수한 것은 올해 대규모 초과 세수가 예상되면서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다시 커졌기 때문이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재

원으로 하는데, 세수가 늘면 학생 수 감소와 관계없이 교부금 규모도 자동으로 증가한다. 정부 안팎에서는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초·중등 교육재정만 계속 확대되는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교육계는 학생 수 감소만을 기준으로 교육재정을 축소하는 것은 학교

현장의 실제 비용 구조를 반영하지 못한 접근이라고 맞서고 있다. 학생 수가 줄더라도 학교와 학급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시설관리비 등 고정성 비용은 그대로 발생하고, 디지털 교육 전환과 돌봄 확대, 고교학점제, 특수교육 지원 등 미래 교육 수요는 오히려 늘고 있다는 것이다.

교장단체들은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의 교육교부금을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육재정도 줄어야 한다는 단순한 경제적 논리는 학교 현장의 실제 운영 구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학생 수가 줄더라도 학교와 학급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고정 비용은 쉽게 줄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시설 관리비 등은 학생 개인이 아닌 학교 단위로 지출되는 예산인 만큼 학생 수 감소만으로 재정 규모를 산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디지털 미래 교육 인프라 구축, 돌봄

확대, 고교학점제 안착, 특수교육대상 학생 증가에 따른 맞춤형 인프라 확충, 노후 교육환경 개선 등으로 현장의 재정 수요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장단체들은 “저출생 심화와 AI·디지털 대전환이라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은 국가 생존의 문제”라며 “단기적 효율성에 매몰돼 교육 재정을 축소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정부와 재정당국에 ▲일방적인 교육교부금 축소 추진 중단 ▲학령인구 감소만을 내세운 교부금 산정 방식 변경 전면 재검토 ▲학교 현장의 고정 비용과 미래 교육 환경 구축에 필요한 안정적인 교육재정 보장 ▲교육 당사자가 참여하는 공식 ‘교육재정 협의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이들은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와 대한민국 공교육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지켜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이주배경학생 진학 정보 장벽 낮춘다

서울시교육청, 대입 맞춤형 설명회 한국어 어려운 학생에 AI 통역 지원 학교 찾아가는 진로·진학 등 컨설팅

서울시교육청이 이주배경학생 대상 진로·진학 지원을 확대한다. 입시 설명회에 AI 동시통역을 제공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컨설팅을 운영해 언어·정보 격차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주배경학생의 진학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27 대입 대비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진학 설명회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진학 컨설팅 ▲서울진로직업박람회 이주배경학생 지원 부스 운영 등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 지역 이주배경학생은 2025년 4월 기준 2만2002명으로 전체 학생의 2.95%를 차지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3일 서울시교육청 대강당에서 ‘2027 대입 대비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진학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는 오후 3시 30분부터 5시 20분까지 진행되며, 등록은 오후 3시부터 3시 30분까지다. 1부에서는 대학별 이주배경학생 대상 전형과 2027 대입전형, 다문화가정 자녀 특별전형, 외국인전형 등을 설명한다.

2부에서는 학생 유형별 진학 경로와 지원 가능 전형, 한국어능력·학업역량·진로 설계 등을 고려한 진학지도 사례를 소개한다. 한국어 사용이 어려운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AI 동시통역 서비스도 제공한다.

아울러 7월부터 10월까지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진로·진학 컨설팅’도 운영한다. 신청 학교 중 선정된 학교에

전문가가 방문해 학생,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학생에게는 진로 탐색, 교과 선택, 학생부 관리, 1대1 상담 등을 지원한다. 학부모에게는 한국의 진학 체계와 입시제도 상담을 제공하고, 교원에게는 이주배경학생 진학지도 연수와 컨설팅을 실시한다.

7월 14~15일 열리는 서울진로직업박람회에는 이주배경학생 지원 부스가 마련된다. 부스에서는 다문화 진로·직업 정보 전시와 외국 국적 학생의 체류자격을 고려한 진로·진학 상담이 진행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주배경학생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학생·학부모·교원 대상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경기도, ‘기후행동 기회소득’ 흥행

출시 2년 만에 가입자 200만 명 걷기·대중교통 등 생활 실천 확산

경기도가 2024년 7월 선보인 모바일 앱 ‘기후행동 기회소득’의 가입자가 출시 약 2년 만에 200만 명을 넘어섰다고 22일 밝혔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생활 속 실천 활동에 보상을 제공하는 경기도의 탄소중립 실천 플랫폼이다. 도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기후행동을 탄소감축 성과와 연계해 자발적인 실천을 유도하고 있다.

이 앱은 출시 2주 만에 가입자 10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 2025년 2월 1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번에 200만 명 고지를 달성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가입자들이 그동안 앱을 통해 실천한 대중교통 이용, 걷기, 자

전거 이용, 텀블러 사용, 줄기 참여 등의 활동으로 감축한 온실가스는 약 63만 톤에 달한다. 이는 나무 약 500만 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효과라고 도는 설명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도민의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을 장려하는 대표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생활 속 작은 행동을 지속 가능한 기후행동 문화로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경기도는 가입자 200만 명 달성을 기념해 도민 참여 온라인 이벤트도 진행한다. 앱을 통해 축하 메시지와 정책 참여 소감을 남긴 참여자 가운데 200명을 선정해 편의점 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이벤트를 통해 수집한 도민 의견과 참여 경험을 향후 사업 운영과 정책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화성특례시, 나들이 명소 ‘용건릉’ 추천

용릉~건릉 숲길 30일까지 개방 정조 효심 깃든 세계유산 조선왕릉



용건릉 숲길.

/화성특례시

초여름의 푸르름이 짙어지는 6월, 역사와 자연을 함께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산책길이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다. 화성특례시가 이달의 나들이 명소로 추천한 용건릉(용릉~건릉)은 정조대왕의 효심과 조선왕실의 역사가 깃든 세계유산이자, 울창한 숲길과 천연기념물이 어우러진 문화유산 공간이다.

화성시 안성동에 위치한 용건릉은 유네

스코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의 하나로, 조선 왕실의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인

정받아 2009년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용릉은 추존 장조의황제인 사도세자와 헌경의황후 홍씨를 모신 능이며, 건릉은 조선 제22대 임금 정조와 효의선황후 김씨의 능이다. 특히 용릉은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를 향한 그리움과 효심을 담아 현재의 화성으로 천장한 뒤 조성한 공간으로, 그의 애뜻한 사부곡(思父曲)이 서린 장소로 평가된다. 이 같은 역사적 공간을 더욱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용릉~건릉 숲길’이 오는 30일까지 한시 개방된다. 국가유산청 공능유적본부가 진행하는 ‘세계유산 조선왕릉 숲길 개방’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화성(경기)=김대의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11 | 해질 / 19:57

6월 23일(화) 음력: 5월 9일

수도권 날씨 19~29°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연천 16/29, 동두천 17/28, 가평 16/27, 파주 17/28, 서울 19/29, 양평 18/28, 인천 20/29, 수원 19/29, 용인 19/29, 평택 18/28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미국무, 콜롬비아 대선 결선서 승리 극우 후보에 축하 인사

▲트럼프 종전합의 후 새 난관 직면... “이란 협상력·마가 진영 반발 등”

/사진 뉴시스

▲파키스탄·카타르 “미·이란, 고위급 위원회 신설... 60일 내 최종 합의”

▲이란 외무 “합의 첫 시험대는 레바논... 석유 제재 유예 등 성과”

▲이스라엘군, 레바논 남부 헤즈볼라 지하 드론 공장·기지 언론 공개

▲젤렌스키 “신형 드론 사거리 3000km... 러 매일 공격할 것”